



전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2019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학생들이 최근 청내 2층 대회의실에서 16박17일의 유라시아 일정을 마무리하는 귀국보고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제공

“통일 희망의 꿈 안고 돌아왔습니다”

도교육청 '2019 전남통일희망열차학교' 성료
백두산 등정·안중근 의사 순례 등 17일간 강행군

유라시아 대장정에 나섰던 '2019전남 통일희망열차학교' 학생들이 17일 간의 일정을 모두 귀국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19전남 통일희망열차학교'는 최근 청내 2층 대회의실에서 통일희망 열차대장정 귀국 보고회를 갖고 16박17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귀국보고회에는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직원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학생 80명과 지도교원 및 운영요원 22명 등 총 102명으로 구성된 탐방단은 이

날 보고회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과 중국 하얼빈, 백두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등을 거친 유라시아 대장정의 성공적 수행 과정을 장석웅 교육감에게 보고했다. 이어 학생들과 교직원, 참석자들은 17일 간 펼쳐진 열정과 도전의 전 과정을 기록한 영상물을 시청하며, 통일희망열차 학교 대장정의 감동과 의미를 공유했다. 학생들은 이번 대장정 기간 동안 중국, 백두산, 러시아 등을 탐방하며 항일 역사를 되짚고 통일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8명씩 10개 반으로 나눠 반별 지도교사와 함께 독서토론을 하면서 안중

근 의사 기념관 등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고려인 마을 봉사활동, 자치회 활동, 국제 문화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민족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 천지에 올라 통일 희망의 꿈을 새겼다. 백두산 등정에 앞서서는 광개토태왕릉비와 장군총, 압록강 일대 고구려 유적지 탐방을 통해 대륙으로 향한 고구려의 기상을 눈으로 확인하고 느꼈다.

학생들은 또한, 중국 하얼빈과 뤄순의 관동법원, 뤄순감옥을 찾아 항일 독립 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했다.

학생대표 김슬기양은 소감발표를 통해 “백두산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흐르는 천지를 바라보면서 과거 고구려와 발해의 땅에서 통일을 외치며 천지를 바라볼 수 있었음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김수민 학생도 “압록강을 방문했을 때 다른 나라를 통해 우리 민족의 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화가 났다.”며 “대장정 기간 동안 돌로 갈라진 우리가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열차학교 학생들은 이번 대장정 기간 동안 중국, 백두산, 러시아 등을 탐방하며 항일 역사를 되짚고 통일 희망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장석웅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다가오는 통일코리아의 주역이 될 여러분은 압록강, 백두산, 두만강에서 분단의 현실을 지켜보며 우리 민족이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 보았을 것”이라며 “이번 여정을 통해 얻은 모든 것들이 조국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조선대, 2019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9일 오후 5까지

조선대가 2019학년도 후기 3차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

13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번에 모집하는 대학원 신입생은 인문사회, 자연,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의 석사과정과 박사 과정이다.

석사과정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 취득 예정자 ▲학·석사연계 과정 신청자는 조선대학교 재학 중 대학원 교과과정에서 6학점(B+) 이상 취득(예정)자(2019년 8월 졸업예정자에 한함)다. 대학(학사과정)의 출신학과에 관

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박사과정 지원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년 8월 취득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다. 역시 석사과정의 출신학과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원서접수 기간은 8월 14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다. 입학원서는 인터넷(www.uwayapply.com)으로만 접수하며, 인터넷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해 입학지원서 출력본을 및 서류 등을 접수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조선대 대학원(062-230-6402)에 전화하면 된다. /조기철 기자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은 최근 수련원 내부에 북카페와 노래방 시설을 완비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북 카페·노래방서 힐링하세요”

광주학생해양수련원, 학생·교직원에게 개방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이 수련원 내부에 북카페와 노래방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특히 내부 숙소에 응급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해 투숙객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상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명구조 시스템도 완비했다.

13일 광주학생해양수련원에 따르면 수련원 북카페는 방문한 직원들로부터 차 한 잔을 편히 마실 실내공간이 없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해 본관 1층 유휴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쳤다.

특히 음료와 독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힐링 공간으로 조성했다. 본관 2층과 3층에 설치된 노래방은 학생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음 등에 완벽을 기해 설치하는 등 최적의 학생 놀이 공간으로 꾸몄다.

교직원 휴양 시설인 콘도형 숙소에

는 응급 비상벨 시스템을 각 층마다 설치해 교직원 가족 중 갑작스런 심정지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응급벨을 누르게 되면 응급 경보와 함께 해양수련원 본관동 안내실과 기계경비업체에 직접 전파되도록 했다.

응급상황을 수련원에서 즉시 인지함과 동시에 119 구조대에 연락해 응급 상황에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응급 상황 시 숙소동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해양수련원 직원들이 즉시 상황에 투입돼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면서 119 구조대가 해양수련원에 도착할 때까지 끝단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유선주 관리과장은 “광주에서 멀리 위치한 해양수련원을 찾아오는 학생·교직원·교직원 가족들에게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광주학생해양수련원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직원 복지시설 구축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대에 미술품·역사자료 기증 잇따라

병풍·서예·한글제문 등 추후 전시회 개최도

최근 전남대학교에 다양한 근현대 미술품들과 학교 역사자료 등이 잇따라 기증되고 있다.

13일 전남대에 따르면 김재전 명예교수(경영대)는 최근 병풍, 매죽도, 서예 등 모두 6점을 전남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가운데 19세기 말 소방 김홍주의 '십군자10폭 병풍'을 비롯해, 연진회 초창기 회원이면서도 월북작가란 이유로 작품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서운 임신의 '산수화 10폭 병풍'과 만운 오의군의 '서예 8폭 병풍'을 묶은 양면병풍이 주목받고 있다.

또 동강 정운면의 '매죽도'와 고당 김규태의 서예작품도 눈길을 끌었다. 이들 유물들은 김 교수의 할아버지인 김하국씨가 생전에 지역 문객들과 교류하며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철 교수(기계공학부)는 한학자 이원우 씨가 1953년 경주 방어리에서 작성한 원제문을 최 교수의 모친인 이상분씨가 필사한 한글제문을 기증했다. 사리 최실(사리마를 최씨가문으로 시집간 딸을 이르는 말)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한 이 제문은 원문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필사본이지만 사료적 가치가 높고 가사체 형식으로 문학성

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기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민 최영자씨는 의재 허백련의 서예 1점을 기증했다. 이 글씨는 허백련 화백이 4서 3경 등에 나오는 좋은 경우들을 골라 모아 완벽당 화랑의 운영자 최원택씨에게 써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증자 최씨는 전남대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생으로, 훌륭한 강의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진선 전남대 박물관장은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자칫 사라질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와 역사자료들이 후세에 전해질 수 있게 해 준 기증자들에게 감사한다”며 “기증품들은 박물관 및 대학역사관 유물로 등록하고, 추후에 전시 기회도 갖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조선이공대-국방부 군복무 학점인정 '협약'

조선이공대는 최근 서울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박재민 차관과 조선이공대 외 11개 대학 총장 및 대학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군복무 학점인정 제도란 장병들이 군복무기간 중 교육·훈련을 통해 축적하는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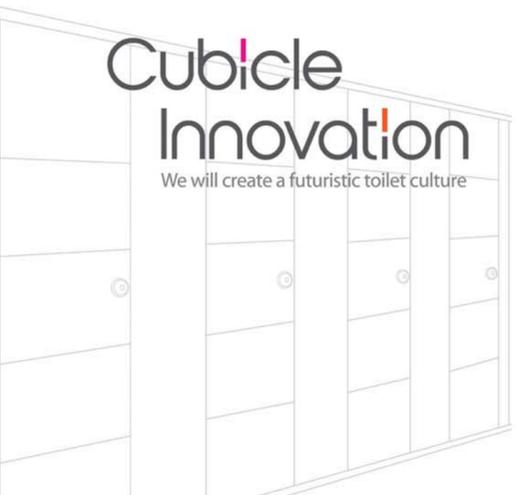
학교 밖의 교육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인정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을 체결한 대학은 복무 중 경험한 사회봉사, 리더십, 인성교육 등을 자율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선이공대 나승희 교무인력처장은 “군복무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화장실 칸막이의 모든것

중원큐비클과 함께



화장실 칸막이 40년 노하우로 직접 생산 및 전문시공업체
다년간의 관공서, 기업체, 상가, 병원, 학교, 어린이집, 휴게소 등
시공 및 판매 경험으로 화장실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해 드립니다.

- 직접생산을 통한 저렴한 가격
-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제품 신뢰성
- 생산자 직접 시공을 통한 완벽한 시공

전국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바로 달려 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CUBICLE
[주]중원큐비클

T : (062)525-6993~4
F : (062)525-3832
(우)61900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502번길 20-8

M : 010-3647-3832
E : jwc3832@nate.com

